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6년도 표어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1-6)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시이며 또한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Spurgeon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 가운데 있는 진주'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는 의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이 시는 필박받는 사람, 고난 받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의 말씀으로, 또 권면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만 4천 번 이상 나오고 있으며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다(I am that I am)'라는 뜻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초시간 속에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지해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나 봉사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무엇을 전가시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으로 자존자(自存者 self-sufficiency)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란 아주 천박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다면 가족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목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춘하추동 양과 함께 있으며 양들을 먹이고 보호해야 합니다. 목자는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종에 속합니다.

그런데 천지의 대주재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친히 말씀하시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목자는 99 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밤새 헤매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왔다는 비유를 하시며 그 목자가 곧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로서 우리를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처지 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리가 아닌 한 우리는 주님의 참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무리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2.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사실 양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고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총만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주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천지 만물을 소유한 자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 쓰지 아니하나이다"(시 131:1).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마 6:34. 성도는 자기 분깃 밖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D. L. Moody 목사님은 '네 부요가 소유가 많은데 있지 않고 소원이 적은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소원을 단순화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밖의 다른 것을 소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원하며 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성도는 어디서나 족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만족합니다. 잠에는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3.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가 부족하지 않은 것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2절).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쉴 곳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Philip Keller 목사는 시편 23편을 목상하다가 8년간 목자 생활을 하고서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서 양은 좀처럼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적어도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눕는다는 것입니다. 겁이 없을 때, 자기 들끼리 마찰이 없이 자유로울 때, 해충이나 기생충의 침범이 없을 때, 배부를 때 다시 말해서 양은 만족할 때 눕는다는 것입니다. Keller 목사에 의하면 양은 목자가 믿음을 주고 평안감과 해방감을 주며 목초지를 제공해서 배불리 먹게 해 줄 때 비로소 눕는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초두에서 힘을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참 평안을 얻게 될 터이니 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열린프로그램 개강

3월6일(월) 각 프로그램별로 일제히 개강 · 오늘부터 접수시작

열린프로그램 개강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매 학기마다 수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강의실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열린프로그램은 교회와 이웃 주민이 함께 강의를 들으며 여가선용과 성경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았다.

교회는 오는 3월6일부터 열리는 열린프로그램의 접수를 위해 오늘 주보에 신청서를 간지로 넣었다.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좋은 강의도 듣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는 기회로 삼기 바라며 서울교회 성도들 누구나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천국시민 양성과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편 제12기 찬양대 양성반은 다음 주일(3월5일)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개강하여, 7주간의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육사 62기 졸업감사예배

2월28일(화) 오후 7시 육사교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제62기 기독사관 생도들이 4년간 정규 교육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고 군의 초급 지휘관으로 군선교사로 파송 받는 육사 졸업감사예배가 2월28일(화) 오후 7시 우리교회 주관으로 육사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는 62기 졸업감사예배

에서 '준비된 사람, 바울같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비전 2020운동본부가 지원을 하게 된다.

선교의 옥토요 황금아장인 60만 장병의 군복을 화를 이룩하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설 육사 제 62기 기독사관생도 졸업감사 및 파송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학교 개교

3월2일(목)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

호산나 학교가 그동안의 준비작업을 모두 마치고 오는 3월2일 오후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개강감사예배를 드리고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호산나 학교 1기 입학생은 대안학교, 방과후 학교, 전문대학 등 총 3과정에 62명이 입학하게 되며 이날 1부 순서로 호산나 복지재단 이사장이신 이종운 목사의 설교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개교 및 입학 축하행사로 공성진 국회의원의 축사, 이만영 한 국장애인부모회회장의 격려사, 서울정신지체청소년 합창단 단원인 조현진 씨의 축사가 이어진다.

KCC 서울통곡기도대회

2월28일(화)-3월1일(수) 영락교회

신앙과 인권의 사각지대인 북한의 주민과 탈북자를 위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KCC(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서울통곡기도대회가 2월28일 오후1시부터 3월1일까지 이틀간 영락교회에서 열린다. 특히 수요저녁7시 예배는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형제요 이웃인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이번 기도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교구별 일제심방 시작되다

3월부터 각 교구별로 일제 심방이 시작된다. 각 교구의 간사와 다락방장은 기도제목을 미리 받아 가정별 심방 시 감사의 정성과 함께 심방예배 시 드려 함께 기도하게 된다.

이미 일제심방을 먼저 시작한 교구도 있고 5,6교구는 부임심방으로 일제심방을 대체한다. 일제심방을 통해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열린도서실 이용안내

우리교회는 성도와 주민을 위해 열린도서실로 102호실을 마련하여 누구나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각종 교양도서 및 신앙서적을 비치하였다.

열린도서실 이용시간은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이다.

열린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성도들을 위하여 도서실 개방시간에는 회의나 모임 장소로 102호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천국시민양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부대학 (학감 이복규 장로)

서울성경대학 (이태훈 목사)

상큼한 봄기운이 돌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이웃 주민을 위한 열린 프로그램 주부대학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공헌하는 주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3월7일(화) 오전10시, 서울교회 602호에서 개강합니다. 이번 제11학기 주부대학에서는 '올바른 자녀교육'이란 기독교 상담학 이두표 목사 주제의 공개강의를 비롯하여 '체질에 따른 수험생 건강관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예술의 이해', '교회음악과 찬송법' 등 신앙생활과 자녀교육에 비전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교실, 요리강좌, 기초중국어, 스프레칭, 공예, 독서지도 등 관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형적 사건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성경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다리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앙성장을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쉽게 해석해주는 지도 교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3월 첫 주부터 다양한 성경공부반이 개강하게 됩니다. 새벽시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등 참석 가능한 시간에 참여하시어 올해에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시는 귀한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세대부모학교 (박금실 전도사)

파란 새 순이 파릇파릇 돌아오는 계절이 오네요. 별처럼 초롱초롱한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에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가슴에도 봄은 새로운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현숙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깊고 강력한 욕구가 아닐까요?

이에 제1기 새세대부모학교에서는 701호실에서 10:00-11:00까지 어머니들이 원하는 내용의 강의에 참여하고, 11:00-12:30에는 각 조별로 옥사를 통한

교제와 발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706,707호실에서 '가베'와 함께하는 신앙주한학교의 형태로 따로 진행됩니다. 4월 29일(토)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야외소풍도 있습니다.

와 보세요!

오셔서 진정한 우리들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렘!...

- ♥ 대상 :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점심 제공)
- ♥ 시간 : 3월7일(화) - 5월9일(화) 10:30 - 12:30
- ♥ 특권 : 어린이방(아기방) 운영

3.1절특별기고

이 소리가 들리는가?

유창근 (대학교수)



몇 년 전 로마를 기점으로 출애굽의 역순에 따라 이스라엘의 맛사다, 이집트 시나이산 등지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아쉬움 속에 귀국한 일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일부를 직접 체험한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세미한 것까지 소중하게 추억으로 만들었다.

일정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지만 특별히 삼일절을 앞 둔 이 시점에서 생생히 떠오르는 것은 로마군과의 최후 격전지 맛사다이다.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967명의 유대인 애국대가 이곳 맛사다로 와서 배수진을 치고 2년간이나 로마에 대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싸우게 된다.

최후까지 버티던 유대인은 이틀날이면 성이 함락될 것을 알고 "인간의 고통은 삶이 죽음이 아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되는 치욕을 생각해 보았는가? 지금 우리 손안에 칼이 있고 우리의 손안에 자유가 있을 때 영광스럽게 자유를 선택하여 죽자. 저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넘겨주지 말고 대신 목숨을 끊은 우리들의 시체를 넘겨주자" 고 외치며 모두 죽음의 길을 택한다. 다음날 로마군이 성안에 들어갔을 때는 피 비린내와 널려있는 시체들뿐이었다. 로마는 맛사다를 정복했지만 유대인은 정복하지 못했다.

이후 유대인들은 다시는 전멸하지 않겠다는 결의

무저항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선열들의 애국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맛사다의 교훈을 되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함성을 기억하며 꺼져가는 애국심에 불을 붙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의 표시로 'No More Masada!'라는 슬로건 아래 맛사다의 위대한 죽음을 되 뇌이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입대 선서식을 맛사다에서 거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극기 훈련 코스로 맛사다를 찾았다고 한다. 그들은 애국심을 호소할 때 '기억하자 맛사다!(Remember Masada!)'라고 외친다고 한다. 이 애국의 소리가 그들의 의식을 깨우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맛사다처럼 피비린내의 역사가 있다. 일제통치 10년째 되던 1919년에 당시 2천만 한민족이 일본의 침략적 정복에 항거하여 자주

독립이 되어야 함을 세계만방에 선언한 3·1독립운동이다.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1,542회나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만세 시위에 동원된 인원만 2백만 명이 훨씬 넘었으며, 일경에 의해 사살된 사람만 70,509명, 부상자 15,961명, 검거당한 자 46,948명, 소실된 교회 47개, 학교 2개, 민가 715호였다. 일경의 무자비한 사례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강연회가 있다고 신도들을 모아 놓고 교회당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러 태워 죽인 일이 있었다. 또 남강 이승훈 선생이 교장으로 있던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는 민족운동의 본거지라고 하여 설립된 지 10년 만에 일제에 의해 불타버렸다. 이런 잔인무도한 일제의 보복의 제일 큰 대상은 기독교였고, 기독교학교였고, 교회지도자들이었다.

이제 다시 삼일절을 맞이한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적 식민정책에 우리민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가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저항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선열들의 애국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맛사다의 교훈을 되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함성을 기억하며 꺼져가는 애국심에 불을 붙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천국시민양성 - 겨울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의 기도!

최춘숙 집사(유년부 교사)

올해도 변함없이 겨울성경학교를 열게 하시고, 은혜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는 어린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 맞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 "주님의기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매일매일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라는 어린이,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될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시간, 협동심을 기르는 공동체 훈련시간, 맛있는 간식과 식사시간까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이 어린이들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서울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



고, 묵묵히 수고해 주신, 학부모님, 선생님, 부장님,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등주 (초등부 4)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생긴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기 싫어 하여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자주 안 가십니다. 교회에 잘 가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유효민 (초등부 5)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과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양보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 주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줄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임지수 (초등부 6)

하나님 우리 가족다 예수님 믿도록 도와 주시고 제가 3월2일에 학교에 가게 되는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가족 간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상처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바른 방식으로 진심으로 예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로 세운 십자탑 점등식

3월5일(주) 오전 8:30 초종올린다

교회의 상징 마크가 되는 십자탑이 새로 건립되었다. 높이 28M(지상으로부터의 높이 74.2M)의 십자탑은 네온이 켜져 밤하늘을 밝히게 되고 종탑에는 사방에 각각 소형의 종과 하나의 큰종을 달아 놓아 차임을 울리게 된다.

오는 주일(3월5일) 오전 8시30분 십자탑 점등식과 초종을 올린다. 이날 당회원과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한티공원으로 8시20분까지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적 순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KCC 통곡기도회

민족구원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



김상철 장로(3교구)

2005년 11월 27일 LA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LA통곡기도회'에 1만 명이상이 운집하였다. 3시간 동안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진행된 이 기도회는 미주한인교회 행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천여 명 합창단이 부르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이어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 동족들의 처절한 사연들이 전해졌다.

Sam Brownback 美상원의원은 '민주주의는 폭정과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자유를 위해 쫓겨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선언했다. '공산독재 억압 60년 이 지나기 전에 북한 동족을 구원하소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아 주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하는 기도가 합심으로 울려 퍼졌다. 이 통곡기도회는 2006년 3월 1일 영락교회에서 해외 한인 교회 목회자 1천 명과 국내 목회자 5천 명 참석을 목표로 준비 중인 서울통곡기도회로 연결된다.

그동안 북한인권과 북한구원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끈질기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1999년 탈북난민보호UN정원운동본부가 이종운 목사님의 발기로 발족되어 2001년까지 2년간 모두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네바 UNHCR본부와 뉴욕 UN총회 사무국에 전달되었다.

그중 80여만 명의 서명을 서울교회 교인들이 받았다. (박순봉 권사- 11만4천 명, 김세재 장로- 10만8천, 김인식 권사- 10만7천, 김선미 권사-5만6천, 한명순 권사- 3만3천, 홍성주 장로- 3만2천, 함송현 권사- 2만3천, 이민화 권사, 이학주, 이상태 집사- 1만 명 이상) 1천만 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는 사회분위기가 냉담했었으나 그동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이만큼이나 관심이 높아진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사실 북한 동족은 김정일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웰빙을 추구하고 정부 여당은 친북종김(從金)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진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각자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하겠는데, 기도가 바로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인권과 북한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의 불길이 맹렬히 번져나갈 때 한국사회에 애국운동이 폭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피상적(皮相的)으로만 보아 가지고는 풀 수가 없다. 왜 북한에서는 '김일성수령' 우상숭배가 지배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영적(靈的)인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기도운동이 들끓어 일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할 기도의 불길이며, 활활 타올라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거침없이 번져나가라!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화) 육사졸업감사예배, 3월1일(수) 서울통곡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장학금 회사: 반포라이온스클럽(회장:이호철)에서 디아스포라부 고등학생2명에게
- 승진: 최형렬집사(2교구): 성남오리초 교감
- 이사: 전주자 권사, 민마리아 성도(11교구) 하남시 덕동동 559-13 한솔리치빌파크 T. 031-794-6128 윤영민, 임혜경 성도(10교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우림тип전빌@T.031-798-1482
- 이전: 여유현집사(1교구) 가야이앤씨: 구로구 구로동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2차 1501호
- 득녀: 하상용 김지영 성도 가정 2월19일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2월26일) 도르가전도회(3월5일)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만민에게 전도

디아스포라의 영혼들이..

최정인 집사(디아스포라부 총무)

이번 수련회에서 보배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뜻과 의미를 아주 소상하고도 깊이있게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수련회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항상, 또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새로운 믿음의 씨앗이 돌아오고 또 무럭무럭 자라서 큰 쓰임 받는 제복으로 키우기 위한 알찬 양육의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외국인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에 값진 씨앗을 뿌리시고 잠드신 외국인 선교사 묘원인 「양화진」과 「절두산 성지」, 「순교역사 박물관」을 숙연한 마음으로 돌아보으로써 그분들의 값진 희생을 가슴에 새길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혜 총만하신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격려의 손을 잡아주시는 서울 교회 온 가족, 성도여러분과 부서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삶은 계란 한 보따리를 정성스레 싸 드시고 먼길 마다않고 달려오신 어느 권사님의 사랑은 우리를 환호로 감동케 하였습니다.

이제 굳었던 저들의 얼굴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을 받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환한 모습으로 어려움과 외로움을 떨쳐 내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지내는 모습으로 변해 감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이후 더 많은 '디아스포라'의 영혼들이 우리 '서울교회'에서 진정한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북한자 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2. 육사 졸업감사예배와 호산나 학교 개교를 위하여
3. 북한신앙자유를 위한 서울통곡기도대회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